

나눔(Communication)을 통한 건축문화의 진정성 찾기

The Search for Truth in the Culture of Architecture
through Communication

이주연 / 월간「건축인Poar」 주간
by Lee Joo-Yeon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란 모두 사람으로부터 생기고 사람을 위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를 보며 자기에게 재미를 주는 일을 찾는 것도 여럿 속의 나를 확인하는 절차에 필요한 작업이다. 재미에 대한 관심은 사회와 함께 하려는 원초적인 관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사람이 일을 도모하여 무엇을 생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인 하나이다. 훌쩍 뛰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좋을 성싶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그 세상 살이의 울타리에서 대중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건축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쌍방의 관계 설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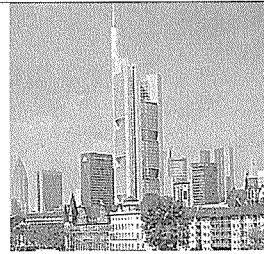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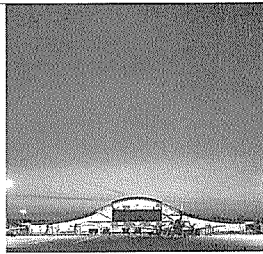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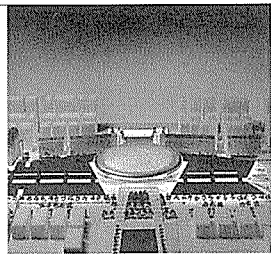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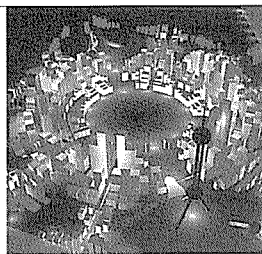
건축 사회의 의사소통의 논리는 현장성이 주요한 관심일 수밖에 없다. 건축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가지의 형과 틀로 묶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일상이 공동의 관심을 확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광장으로 상정될 수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건축사회의 동정을 일갈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연대기적 사실의 줄세우기는 아닐 것이다. 요즘의 상황은 이전의 그것과 큰 변별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건축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은 제각각 따로 놓고

있음을 본다. 특히 공공성을 갖는 건축 대중을 상대로 한 행사 등 이벤트성 '사건' 들은 늘 존재하는 연례적 흔적으로만 남는다. 물론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더 우선으로 쳐주어야 하지만 뚜렷한 화두를 건져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도 여전히 있을 것은 있었고 없을 것은 없었다는 무책임한 결과론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무딘 감각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진정 이 시대의 우리 건축에서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사소통의 기획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먼저 상정하고 건축세상을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

건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모두가 건축행위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분야는 건축의 진정성을 기능하는 자연발생적 건축문화 행태의 한 단편이 된다. 그래서 공모전, 전시회 등은 건축 대중의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사고의 공유와 나눔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축문화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구 건축가들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 은 여전히 듯하다. 이들은 대부분 설계일의 수주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번쯤은 전시회나 강연회를 열어 인기도를 과시하곤 한다. 그것도 우리네 돈을 들여서. 그래도 지난 한 해는 그전에 비해 찾지는 않았다. 한국에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마리오 보타, 마이클 그레이브스 등 '오래된' 건축가들이 여러 해 동안 몇 차례 들어와 전시회나 강연회를 열곤 한다. 그네들은 올 때마다 비슷한 레퍼토로 자기 얘기를 재탕 삼탕하는 식상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을 찾는 국내건축인들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잘 모르겠다. 건축과 관련한 일이 경제활동의 일단이니만큼 그네들의 한국활동에 대해 우리가 제동을 걸 일은 아니지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그들 전시회나 강연을 지켜보면서 갖는 느낌이다. 어쨌거나 비싼 돈 들여 치르는 일에 무엇이든 남는 것이 있어야 명분도 서고, 그런 행사가 생산적인 문화활



한 · 영만남 200주년을 기념해 열린 「미래도시 건축디자인전」 전시작품들

동으로 인식할 것 아닌가 말이다.

외국 건축가들의 전시는 국가 단체 등의 주관에 의해 열리기도 했다. 근대 초기 유럽의 건축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건축예술운동의 하나인 비엔나 세제션 운동이 100주년을 맞은 것과 함께 오스트리아 건축전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기대했던 국내 건축인들은 한스 홀라인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들을 선전한 이 전시회에서 최근 건축경향을 정보로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 역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즈니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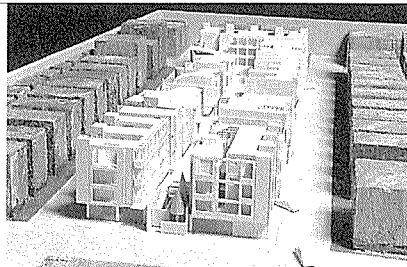
몇 명의 건축가들이 한국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영국도 양국 외교 채널이 주관하는 전시회를 국내에서 열었다. 한 영 수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전시회는 산업혁명 이후 테크놀러지에 관한 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국 건축계의 실상을 반영하듯 '미래도시 건축디자인'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영국 건축가들의 설계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 건축 디자인의 사례를 선보였다. 핀란드 건축가로 근대 서구 건축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알바 알토, 바르셀로나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등 오래 전 작고한 유럽 근대 건축가들의 작품전시회는 우리가 쉽게 접해 보지 못한 뜻밖의 기획을 얻은 전시회이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건축가의 문화 인식, 사회적 역할, 예술 혼과 장인정신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전시 기획력의 부족으로 거장 건축가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국 관련 건축전들이 대부분 형식적 구색맞추기로 열리거나 선전장으로 일관한 반면, 국내 건축가들의 전시회는 점차 건축의 전문성과 사회성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목소리를 갖추는 추세가 엿보인다. 그리 많이 열리지 않은 국내 건축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로 이뤄진 전시들이 주목된다. 21세기, 첨단, 미래 환경 등의 용어가 문화 기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학자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지구 초유기체, 즉 가이아(Gaia)이론을 건축에 도입해 미래 지구의 환경과 건축의 관계를 짚어 본 '건축가 조택연의 가이아 프로젝트전'(월간 건축인POAR)이 열려 화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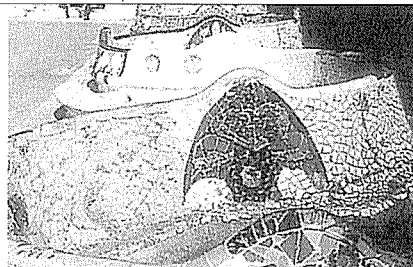
모았다. 현대 과학의 미래적 가능성과 젊은 건축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된 이 전시회는 실현성 여부를 떠나 건축이나 지구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을 다른 차원으로 돌려놓는 계기를 제공했다. 전시를 연 건축가는 "미래의 지구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지구희생장치로서의 건축의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상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국 죽어가는 지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살려내자는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전시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다.

지구의 생명에 대한 거시적 미래적 제언과 대비되는 지역의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경기도 양수리 북한강 일대의 무질서하고 상업적으로 '도가 지나친' 건축물들이 더 이상 양산되는 것을 막자는 젊은 건축가들의 선언을 담은 워크숍전 전시회가 '북한강 이야기-자연과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양수리에 있는 두물워크샵에서 열렸다. 외국활동 경험이 있는 건축가들이 이제는 중견의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 두 건축가의 기획에 동참해 현장성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 준 이 전시회는 젊은 건축가들의 실제 설계 작업을 상품화함으로써 이들의 제안으로 지어지는 시설들이 기존의 '나쁜 건축물'들을 하나, 둘 몰아내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되찾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리없는 외침은 반드시 대중의 정서, 특히 대상지역의 주민들과의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현장성을 강조한 현실참여의 선언을 전체 기획의 프로그램에 끌어들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일단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속적인 작업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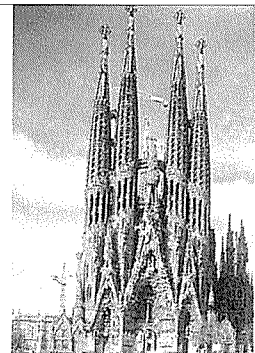
개인이건 집단이건 전시회는 그 전시의 주체가 노리는 의도와 결과물을 앞뒤를 재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주체의 요구를 반영해 경쟁을 벌이는 공모전은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한 명료한 의미찾기를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건축적 구상을 드러내 놓고 일반에게 제시하는 형식에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작인 이현창씨의 「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안」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 「구엘공원의 벤치」(위)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우)



있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어 왔던 공모전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수상자만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될 뿐 흔한 연례행사로 비춰진지 오래다. 아직 사회에 명함을 내밀기 힘든 학생이나 신진들에게는 공개적인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통념적인 인정을 받고, 이것이 이력에 한 줄 올라가서 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등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웬만한 공모전에는 으레 한 번쯤 도전해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아무리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공모전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다. 그것은 점차 응모숫자가 늘고 있는 각종 공모전의 시행 현황을 보더라도 익히 알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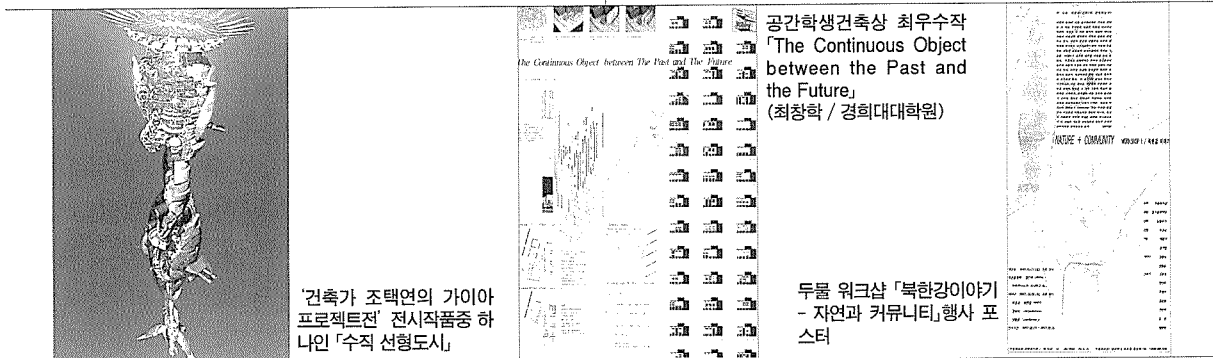
기성 건축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의 문이 열려 있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은 해마다 시행의 개선책이 나왔다가 들어갈 만큼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나 개선의 기미도 없이 연례행사로 잘 치러지고 있다. 응모자들이 공동의 관심사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객관적 평가의 틀마저 갖추지 않고, 극히 짧은 시간에 응모작들을 훑어보고 수상작을 정해야 하는 막연함이 국내 공모전의 대표주자 격인 건축대전이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형식을 가름한다. 이같은 논쟁 부재의 공모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행사 주관자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공모전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이들의 입장이 더 무색해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네 건축세상은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라리 잡지사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은 뚜렷한 주제와 계획 구상의 대상이 주어져 일단 설계 창작작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젊은 학생들의 건축적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될 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없는 자의적 건축행위는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모전에 대한 인식의 명확한 선긋기는 다소의 진통이 따르더라도 보편적 가치로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기성들도 참여해 작품성을 평가받고 있는 미술 등 다른 장르의 공모전과 달리 학생들의 잔치로 전락한 건축대전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표현도 과도하게 요란해지고 있고, 참가하는 응모자 숫자도 매년 늘어

나고 있어 주관하는 단체에게도 참가비 수입증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소모적 잔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 주제없이 제 멋대로 하라는 이 행사에서도 간혹 의미있는 작업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은 있다. 그것은 건축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네 현실과 시대정신 등과 만나 이 시대를 보는 젊은이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로 표현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다. 사회현상에 대한 자기해석과 이의 건축화 작업은 장차 전문가로 성장해 갈 예비 건축가에게 걸 기대의 폭을 점치는 잣대가 된다. 이러한 기대는 몇몇 건축잡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도 얻어진다.

건축대전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잇고 있는 공간학생건축상은 최근 이미 공간의 수장들이 대를 이어 이어놓은 공간사육을 주제로 내 놓는 '모험'을 시도 해 화제가 되었다. 비록 학생의 제안이긴 하지만 수상작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공간의 두 수장의 건축적 성과는 물론 기성 건축가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소박한 개념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국건축이라는 설계회사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기금을 내어 지역성을 살린 건축적 실험의 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모전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잡지같은 홍보수단이나 건축관련단체의 프리미엄도 없이 학생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주관하는 재단이 이 프로그램을 설계회사의 운영에 지나치게 연관시키려들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월간 이상건축의 공모전과 함께 지방의 독특한 건축문화의 형성에도 토양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에 건축관련 소식이 자주 등장하더니 이제 건축가들의 이야기도 여러 문화현상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지면이 경쟁적으로 늘어나 기사채우기의 덕을 본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의 시각이 이제는 건축을 보편적 문화행위의 하나로 보아 줄만큼 성숙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일반 대중과 함께 하는 건축은 우리가 지향을 할지언정 나서서 막을 일은 절대 아니다. 이같은 대



'건축가 조택연의 가이아 프로젝트' 전시작품중 하나인 '수직 선형도시'

공간학생건축상 최우수작
「The Continuous Object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최창학 / 경희대학교학원)

두물 워크샵 「북한강이야기 - 자연과 커뮤니티」 행사 포스터

중매체의 건축다루기는 건축가들의 작품활동으로부터 나오기 보다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출세하려면 책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교수를 포함한 건축가들이 쓴 책들이 쏟아져나와 일반 대중에게 건축이나 건축가의 입지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일반 대중이 읽어도 좋을 교양서로부터 극히 적은 수요일 수밖에 없는 전문서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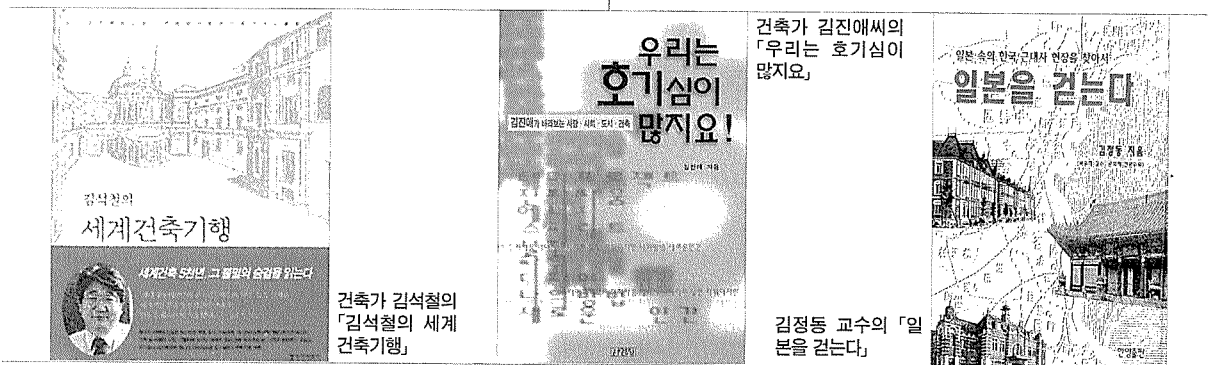
최근에 나온 책들의 면면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쓴 이른바 베스트셀러는 책들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창작과 비평사), 김진애의 <우리는 호기심이 많지요>(김영사), <건축가 김기석의 집 이야기>(살림) 시리즈 등 - 은 모두 사회적 통념상으로 이름값이 상당 수준인 내로라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다. 애당초 글쓰기의 방향을 건축전문가들만 읽으려고 정해 놓지는 않았을 터이고, 건축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책들이 열어주는 공을 세웠을 것이니 반갑게 받아들일 일이다. 향간에는 이들의 책 쓰기 작업이 더러는 건축을 지나치게 가벼운 존재로 취급해 일반 대중에게 오독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의 일침을 가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일수록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진정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책들을 제대로 읽은 건축인들이 우선 가려볼 일이다.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책의 저자들이 문학전문가가 아니라 건축가임을 전제하는 선에서 말이다.

건축의 대중성을 겨냥한 글쓰기는 자연스레 여행을 소재로 한 저작물의 양산을 불러왔다.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플러스문화사) 시리즈,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현영조, 빌딩문화), <유럽건축순례>(박호재, 문학동네) 등은 단순한 기행집의 틀에서 벗어나 저자 각자의 여행을 통한 독특한 건축 읽기가 글쓰기 작업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꾸며진 가운데 건축의 전문성과 역사인식을 음미하고 있는 저작도 눈에 띈다. <일본을 걷는다>(김정동, 한양출판)는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를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의 지속적인 우리 근대건축에 대한 탐구 열정을 현장 감 있고 역사성 있게 학술적인 감각을 동원해 펼쳐 보였다.

소장 학자 임석재의 서양 근대건축사 연구 시리즈중 <불어권 아르누보건축>(발언)은 저자의 야심에 찬 25권 완간 대장정의 초입에 해당해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한 채 지켜 볼 대상이다. 이 작업이 우리네 건축문화의 성장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찬가지다.

반면에 건축전문 출판사들의 저작물은 예년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들의 출판활동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건축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통념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른바 잘 나가는 책이 모두 일반 대중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 베스트셀러도 여전히 건축인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다. 기실 건축가의 역할과 성과는 설계작품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지만, 건축이 단순히 도면으로 표기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건축가의 사고와 문화의식의 표현이 더 절실한 만큼 건축인들의 글쓰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건축의 진정성을 제대로 담고 있는 시대정신이고, 그것은 건축 대중이 고르게 의사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이 서로의 의사를 나눔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 이 나눔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동체 의식이 함께 해야 한다. 최근 우리네 건축계의 동향이 무기력해 있고, 서로의 건축사고를 교류할 수 있는 의사 소통의 문화를 '즐기'는 재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부도위기를 헤매도록 만든 IMF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이에 앞서 우리 건축계는 일찍이 자생력을 위협하는 외국회사의 도전에 시달려 왔고, 이제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어떤 일이든 받아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질서와 시장논리가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의 설 자리를 지탱하는 힘은 버릴 수 없다. 그 힘은 시대정신의 인식에서 나온다. 걸치레를 떨치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이 이 시대의 한파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 속에서 우리네 건축세상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나눔이 싹틀 것이다.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세계건축 50년, 그 열정의 숨결을 읽는다

건축가 김석철의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우리는 호기심이 많지요!
김진애가 바라는 세상 시대, 도시, 공간
김진애 지음
한양출판

건축가 김진애씨의 「우리는 호기심이 많지요」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을 찾아서
일본을 걷는다
김정동 지음
한양출판

김정동 교수의 「일본을 걷는다」